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0호 【부계 제 25579호】 주제 106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설계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설계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16년 7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आरो세겨져있는 연구원을 우리 나라 설계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면시킴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내부개작형성안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였으며 현대화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



건축과학연구사업에서 나서는 파일과 당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천여건의 설계대상과 과학연구과제를 직접 맡겨주시였을뿐만 아니라 설계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면서 연구원의 사업을 결실결실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당의 의도대로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있는것은 연구원을 나의 창작실이라고 불려주시며 첫걸음마를 떼여주는 어머니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설계도면에 찍는 점하나, 설계도면에 긋는 선 하나에도 로동당시대의 사회주의분명, 인민의 리상과 꿈을 그대로 담을 줄 아는 애국적인 미술포, 창작가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우리 장군님께서 건축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를 하나하나 직접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행사업을 보장하면서도 낮과 밤이 따르없는 총정의 전부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연구원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이 훌륭히 개건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 설계의 과학성, 정확성, 신속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설계수단들을 보내주시는 데에같은 온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시적교양실, 연희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적 건축발전을 위해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사가 응축되어있는 귀중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시명과 임무를 명시하여주시고 건축설계와

꿈을 그대로 담을 줄 아는 애국적인 미술포, 창작가로 살며 투쟁함으로써 우리 장군님께서 건축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제 105년 7월 13일 현지말씀을 절거히 관철하라!

사회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라!